

윤활유, 아시아 시장은 공업용 주도

PTI, 경기흐름이 성장 좌우 ... 오염물질 방출 규제 및 교체기간도 요인

미국 윤활유 시장은 자동차 및 공업용 수요비중이 거의 동등한 반면, 아시아 지역은 공업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etroleum Trends International(PTI)에 따르면, 윤활유 시장 성장정도의 차이는 수요비중이 높은 분야에 의해 좌우되는데, 유압작동유(Hydraulic Oil), 압축기유(Compressor Oil), 프로세스유(Process Oil), 금속가공유체(Metalworking Fluid) 등의 세계 공업용 윤활유 시장은 경기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이다.

특히, 공업용 윤활유 시장의 12-15%를 차지하고 있는 금속가공유체는 제화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흐름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세계 자동차 윤활유 시장은 최근 오염물질 방출규제 강화 및 교체기간 연장추세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Kline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서유럽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윤활유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미국도 아직 환경보호국(EPA)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방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사용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국방성은 이미 특정 환경에서 환경친화적인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은 코스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근 윤활유 시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렴하고 교체기간은 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Lubizol은 먼지, 인 및 황 등의 방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엔진유 첨가제 공급기업들도 윤활유 포물레이션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고 있다. 북미 윤활유 시장이 둔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첨가제 시장은 고기능성 제품 수요증가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ExxonMobil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및 원료코스트 상승으로 인해 천연가스를 윤활유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Pure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Pure 탄화수소를 바탕으로 개발된 윤활유는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xonMobil은 최근 세계적인 규모의 천연가스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화학제품 매출액은 1999년 총 83억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윤활유 매출이 33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4/05/31>